

# “한국인인듯 아닌듯... 경계에 있는 삶 그려”

김희정 감독 영화 ‘프랑스 여자’ 샌디에이고 아시안영화제 등 초청  
외국에서 생활하는 한국인들 이야기  
26일 광주극장 관객과의 만남  
11월 광주여성영화제에서도 상영  
조선대 문창과서 시나리오 강의

김희정(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감독의 영화 ‘프랑스 여자’가 화제다. 최근 롯데크리에이티브 공모전 독립영화 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샌디에이고 아시안 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등에 초청돼 관심을 모았다. 지난 18일부터 열리고 있는 ‘개관 84주년 광주극장 영화제’ 개막작으로 관객을 만나고 있으며, 다음달 ‘광주여성영화제’에서도 상영될 예정이다.

김 감독은 서울에대 극작과, 폴란드 우즈 국립영화학교를 졸업했으며 ‘아역스타’ 이세영 배우의 열연으로 화제가 된 ‘열세살 수아’로 장편 데뷔했다. 이번 작품은 ‘살행’, ‘정포도 사랑’을 잇는 4번째 장편으로, 20여년의 타지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미라가 우연히 19년전 과거로 되돌아가며 겪는 이야기를 통해 외국에서 사는 한국인, 이른바 ‘경계인’의 삶을 그려낸다.

김 감독이 이번 작품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폴란

드에서 보냈던 7년여의 유학 생활과 더불어 당시 만나 왔던 ‘경계인’들의 이야기에 있었다.

“베를린에서 40여년을 산 예술가의 집에 며칠 동안 머무른 적이 있었어요. 그는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없다면서 늘 고향에 가고 싶어 했어요. 생활 방식이 한국과 너무나 달라져 있었지만, 마음 한 켠에는 향수가 남아있었던 것이지요. 이번 작품은 이처럼 외국에서 사는 한국인, ‘경계’에 있는 이들



김희정 감독

이 느끼는 괴리감과 쓸쓸함을 담은 영화입니다.”

김 감독이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이유는 “상업영화에서 쓸 수 없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고, 외압 없이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 수 있어서다. 그는 “작품 하나하나를 열심히 키워서 결혼, 돌잔치를 보내는 느낌”이라며 자기 작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으나, 영화 제작 과정은 늘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저예산으로 만드는 작품인 만큼 감독이 직접 캐스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 교수로 일하다 보니 영화 작업은 방학 때만 할 수 있어요. 또 이번

작품은 파리에서 이들 정도 촬영했는데, 예산이 많지 않아서 값싼 중국 항공편으로 이동했어요. 그나마도 모든 스태프가 갈 수 없어서 10명 정도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김 감독이 영화 제작에 힘을 얻는 것은 ‘인연의 힘’이 컸다. 이번 작품의 음악감독을 맡은 폴란드 음악가 마저나 마이체찌와의 인연이 대표적이다.

“마저나씨는 1999년 졸업작품 ‘언젠가’를 함께 작업한 사이입니다. 이번 작품은 20년만에 함께하는 작업인데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음악을 만들어줘서 깜짝 놀랐어요(웃음). 또 이번 작품에 출연하는 밴드 ‘자우림’의 기타리스트 이선규씨, 파리까지 자비를 털어 찾아왔던 김지영 배우, 박정훈 촬영감독, 메이크업 아티스트, 녹음기사... 다양한 인연으로 찾아와 도와준 이들 덕분에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김 감독은 광주극장에 대해서도 특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올해 영화진흥위원회가 ‘한국영화 100년 기념사업’을 통해 100명의 영화인에게 주머니 ‘100초 영화’에서 광주극장을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 “전국 유일의 단관극장인 광주극장은 크기도 크데다 오래되기도 했다”는 김 감독은 “이 공간의 소중함이 잘 알려지고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젠가는 광주에서 5-18이나 역사적인 부분보다는 현대 광주의 모습을 담은 작품을 촬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감독은 26일 오후 5시 광주극장에서 ‘프랑스 여자’ 상영 후 관객과의 만남(GV) 시간을 갖는다. 이세진 ‘바람의 언덕’ PD가 진행자로 참여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김 감독과 김지영 배우가 참여해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줄 예정이다.



김희정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프랑스 여자’의 한 장면.



## 문학이 기억하는 아시아의 역사는

애플문학포럼 토론회 25일 ACC

국내외 아시아문학 저명 작가와 비평가들이 모여 아시아의 역사를 문학이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해왔는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특히 5월 광주의 정신과 맞닿은 ‘인권, 평화, 치유, 연대’의 가치와 의미를 재구성하고 문학적 실천방향 등도 모색할 예정이어서 광주 정신의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019 아시아문학 공개토론회가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 국제회의실에서 ‘아시아 작가의 눈-기억, 치유, 연대’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시아문학인들이 아시아문학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심화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된다.

문화전당은 지난 2017년부터 아시아의 문인들과 이들 작품의 가치를 조명하는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을 통해 아시아 문학 현주소를 짚어보는 계기를 마련, 문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제3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의 사전행사로 개최되며 모두 2개의 세션으로 펼쳐진다.

먼저 9시30분부터 이화경 소설가의 사회로 이진직 전당장 직무대리의 환영사, 한승원 소설가(2020아시아문학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의 포럼 기조연설이 이어진다. 비평가세션에서는 ‘대만 작가들의 식민지 기억과 치유(최말순 대만 국립작가대·평론가), ‘필리핀 문학에서의 일본 점령(마라 필리핀 국립대학 교수·평론가)의 발제가 진행된다. 이희경 전남대 호남학 연구원 HK연구교수, 김남일 소설가, 김태원 서강대 영문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작가세션에서는 ‘오키와와전에서 본 일본의 역사 위주 문제(메도루마 순 소설가), ‘정산되지 않은 과거 어제를 무엇으로 되돌릴 것인가(한수산 소설가)의 발제가 진행되며 김형중 조선대 국문과 교수, 송은일 소설가, 차승기 조선대 국문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후 제2회 아시아문학상 수상작 ‘전쟁의 슬픔’ 창작제 워크숍 프리젠테이션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토론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ACC홈페이지 참조.

## 관계를 통해 남겨지는 ‘흔적’

‘DISSOLVE’ 최용석 개인전, 31일까지 갤러리 S

조각가 최용석 첫번째 개인전이 오는 31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갤러리S에서 열린다.

“DISSOLVE”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최 작가는 차갑고 강인한 물성을 갖고 있는 금속을 활용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최 작가가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관계를 통해 남겨지는 ‘흔적’이다. 치열한 현대사회에서 타인과의 관계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생의 희로애락을 고스란히 경험한다. 작품들은 금속을 불로 녹여낸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색다른 조형미를 느낄 수 있으며 금속으로 그려낸 풍경화 느낌도 난다.

전시에서는 ‘섬과 섬 사이(Between island and island)’ 시리즈와 거미를 소재로 한 ‘PapA’, ‘From line’ 시리즈 등을 선보인다.

호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목포대 미술교육대학원을 수료한 최 작가는 ‘파리에 꽃피다’, ‘빛조각전’ (광주시립미술관)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



‘Between island and island’

했다. 현재 호남조각회, 전국조각가협회, 청동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

## AI시대 인간성 상실 위기 해법 모색 25일 전남대서 10개 주제 학술대회

인공지능시대 인문학과 고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아니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

AI시대 인간성 상실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전남대는 25일 오전 9시50분 김남주기념홀에서 ‘인공지능 시대, 포스트 휴먼 윤리를 위한 인문학과 고전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전남대 인문학연구소와 인문학연구원 HK+ 가족커뮤니티사업단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백종현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장의 ‘포스트휴먼 사회와 휴머니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10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인공지능 및 4차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문제점 파악,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인간성 상실’에 중점을 맞춰 이러한 위기를 인문학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탐색한다.

## ‘바람이 지나간 자리’ 인문학 콘서트 박준 시인 초청...25일 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소장품전 ‘바람이 지나간 자리’와 연계된 인문학 콘서트가 열린다.

25일 오후 3시 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강좌에는 박준(시인) 시인이 참여, ‘읽는다고 달라지는 일은 없겠지만’을 주제로 강의한다.

2008년 ‘실천문학’으로 등단한 박 시인은 제31회 신동엽문학상, 제7회 박재삼 문학상, 제29회 편운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까’, 산문집 ‘უნ다고 달라지는 일은 없겠지만’ 등을 펴냈다.

강연 후에는 또 첼리스트 김후성, 피아니스트 김수연의 연주도 이어진다.

오는 2020년 2월9일까지 열리는 ‘바람이 지나간 자리’ 전에는 한국화, 서양화, 영상 등 모두 44점이 전시된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e** **CES** **BIG INNOVATION**

2015-2019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혁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신양파크호텔 12월 송년모임 특별 감사이벤트**  
한 해를 마감하는 귀하의 소중한 모임. 귀하를 위한 특별 혜택을 준비하였습니다.

**12월 송년모임 혜택 (연회행사시 적용)**

- 각 연회장 메뉴 ..... 10% 할인
- 음료·주류 ..... 50% 할인
- 객실 이용권 증정
- 현수막 1ea 무료제공 } ※50명 이상 행사시 적용
- 빔프로젝트 무료제공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클럽 특별회원 모집 [개인 (월) ₩300,000원] - 회원 특전 -**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 ..... 10% 할인
- 객실 이용시 ..... 50% 할인
- 요가, 에어로빅, 수영 단체레슨 무료

**Shin Yang Park Hotel** 문의 및 예약 ☎ (062)221-4101~3, 228-8000